

강변 살자

글 박찬희, 그림 정림 / 책고래



난개밭이 앓아간 여강의 아름다움 여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

주인공 아이는 강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. 친구들과 강변에 모여 물놀이를 하고, 가을이면 아
빠와 금빛 갈대밭을 거닐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강을 살린다며 보
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여강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. 눈부시게 빛나던 모래사장
도, 물고기도 사라졌지요.

2009년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강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. 강천보가 건설되고 자
전거 도로가 생겼습니다. 한강문화관이라는 체험시설도 만들어졌어요. 예전 여강의 모습을 모르는
사람들은 ‘보기 좋아졌다’, ‘살기 좋아졌다’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. 하지만 여강은 자연미를 잃어버
리고 말았습니다. 그뿐 아니라 유속이 느려지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가 발생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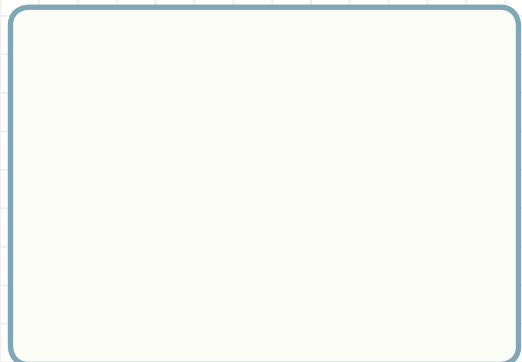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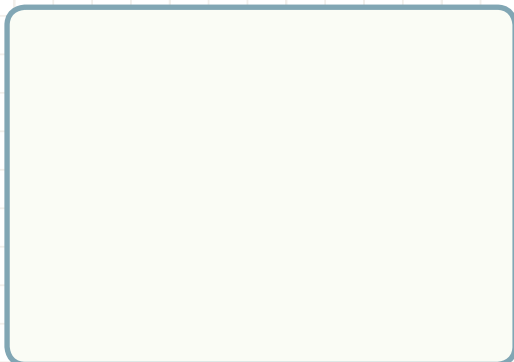
우리는 종종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. 자연에 끼친 해로움이 결국 우리 스스
로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말이지요.

독후활동 시작하기

❶ 야기 속에 나오는 강변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림으로 그림 비교해 보아요.

보를 만들기 전

보를 만든 후



Q 재미로 맞춰보는 OX 퀴즈!!!

아래의 글을 읽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맞는 행동에는 O, 바르지 않은 행동에는 X를 해 보아요.

먹다 남은 우유나 찌개국물은 하수구에 버려요	
계곡에서는 마음껏 물장구를 치며 놀아도 돼요	
강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치워요	
삼푸나 비누를 많이 써야 깨끗해져요	
분리수거는 정확하고 깨끗이 해요	
자동차보다 자전거를 많이 타요	

독후 활동 이어가기

Q 수수깡 낚시대를 만들어 낚시 시합을 해 보아요.

- ① 수수깡 끝에 실을 매고 매듭을 지어요.
- ② 실의 끝에 동전자석을 붙여요.
- ③ 두꺼운 도화지에 물고기 모양을 그린 후 오려 종이 물고기를 만들어요.
- ④ 종이 물고기의 입이나 꼬리부분에 클립을 끼워요.
- ⑤ 커다란 박스나 바구니에 물고기를 넣고 수수깡 낚시대로 누가 많이 잡나 시합을 해요.

Q 종이부채에 예쁜 강변을 그려 친구에게 선물해 보아요.

- ① 두꺼운 도화지나 일회용 접시를 원모양으로 준비해요.
- ② 좋아하는 색깔의 색종이를 ①번의 원보다 조금 작은 원모양으로 잘라요.
- ③ ①번의 원 위에 자른 색종이 원을 올려 붙여요.
- ④ 만든 부채의 아래에 나무 막대를 붙여 손잡이를 만들어요.
- ⑤ 부채에 예쁘게 강변 모습을 꾸민 후 친구에게 선물해요.

Q 아래 그림을 참고해 강변의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의 모습을 그려 보아요.



봄

여름

가을

겨울